

학회운영구상

학회운영구상-1: '국제정치학대회' 개최

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께:

이번에 한국국제정치학회장으로 입후보한 기호1번 서울대학교 김상배입니다. 학회발전과 관련하여 평소에 고민하던 바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몇 차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칭)국제정치학대회>의 개최 제안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학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열의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들여 연구한 결과를 학회의 장에 나와서 발표하고 선후배 학자들과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시키는 학술공간으로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와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위주로 자리를 채운 썰렁한 패널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려 왔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세부 이슈와 세계지역/국가별로 다양한 단위학회들과 연구회들이 구성되어 실질적인 '학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각 권역별로도 명망있는 지방학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세부전공 간 또는 수도권과 각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며 균형 잡힌 학술공간을 만드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각 학회나 연구회들이 기존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1년에 한번 씩만이라도 모두 모여서 교류하는 연합 학술활동의 장을 마련해 보는 데 국제정치학회가 나서봄 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연합대회 형식으로 <(가칭)국제정치학대회>의 연례 개최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미 국내 여타 학회에서는 이러한 연합대회의 형식으로 연례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학 분야를 아우르는 <역사학대회>가 참고할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학회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연합대회 개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원 여러분께 의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투표용지가 발송되어 이제 우편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투표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 배상

학회운영구상-2: '미래국가론 심포지엄' 개최

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께:

기호 1번 학회장 후보 김상배(서울대학교)입니다. 2022년 학회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제안은 '(가칭)미래국가론 심포지엄' 개최안입니다. 앞서의 '(가칭)국제정치학대회' 개최안이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2022년도에 국제정치학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던질 어젠다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위기와 격변, 그리고 변환의 시대입니다. 탈지구화와 지정학의 부활, 코로나19 위기의 충격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 글로벌 경제질서의 디커플링, 그리고 한반도 위기의 상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적 패러다임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국가론'을 이론적 화두로 제안합니다. 감각적으로 미래를 다루는 유행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론은 이론, 사상, 역사, 이슈, 지역, 정책, 방법론 등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어젠다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갖고 닦은 과거-현재-미래의 국가론 연구를 좀 더 개방된 미래지평에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국가론'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모색할 담론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2022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5년을 열어갈 우리의 국가비전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새로운 백 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지향할 미래의 국가모델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국제정치학계의 목소리를 모아낼 심포지엄의 장(場)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 배상

학회운영구상-3: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께:

기호 1번 학회장 후보 김상배(서울대학교)입니다. 제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학회운영의 제안은 '연구분과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앞서 두 제안이 학회 외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면, 세 번째 제안은 학회 활동의 내부적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구상입니다.

최근 학술회의나 세미나 개최는 국가·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학회 집행부가 구성한 기획패널이나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부 연구팀들의 발표패널에 의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공모 논문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여러 회원 여러분의 연구 관심사를 반영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기획-연구-발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22개에 이르는 연구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학회 전반의 학술활동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분과위원회가 자체 조직한 세미나와 패널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들을 모셔놓고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린 것은 아닐는지요. 연구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분과위원회를 '학회 안의 작은 학회'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 집행부가 이러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구분과위원회는 앞서 제안한 '국제정치학대회'에 참여하는 단위학회나 연구회 또는 지방학회들의 활동을 연계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학회활동을 통해서 고민해 왔던 바를, '국제정치학대회' 개최, '미래국가론 심포지엄' 개최,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의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시려면 <http://www.sangkim.net/kaisplan2022.pdf> 를 찾아 주세요.

12월 14일(월)까지 진행되는 우편투표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 배상